

Koreanisch

Der ungenannte Übersetzer
arbeitete mit dem Goethe Institut
in Seoul zusammen.

하인츠 피온텍

꿀 벌

Heinz Piontek · *Die Bienen*

이 유 영 옮김

격언에 나오는 짐승들은
분업을 위한 예로 생각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바람을 막아주는 털가죽
그 아래 갑옷

그들의 기관은 정밀하고
능력이 있다

일초에
200번 날개를 파닥인다

옛날엔 길들지 않은 숲의 짐승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

게으름뱅이 도둑 문예애호가들과
그들은 동정을 모른다

모든 국가는 꿀벌의 상비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教匪)

인간에 대항하여
미택의 입무를 위하여 완전히 단합된

그들은 자신의 직분을 다하며
비감상적으로 행동한다

힘력한다는 뜻에서 언제나
하늘은 공허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죽음을 감수한다
질문하는 법 없이